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환율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불안 지속

2002년 2월 차베스 대통령에 의해 전격적으로 발표된 환율자유화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다시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안의 주원인은 차베스 대통령의 정국운영 방식을 둘러싼 노동계 및 종교계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치불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경우 국제유가가 2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3월부터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OPEC과의 감산합의에 의한 생산량 제한으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등 정치와 경제가 상호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은 동국 경제전망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정치불안과 유가하락 등으로 고정환율제 포기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2년 2월 13일 볼리바르貨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전격 발표하였다. 변동환율제 실시 첫날에는 국민들의 미 달러貨 구입을 위한 대규모 예

금인출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환율이 달러당 792.5볼리바르에서 크게 상승한 달러당 980.5볼리바르로 마감되어 국민들의 환율제도 변경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후 IMF로부터 볼리바르貨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전향적 조치라는 환영 성명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출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환율 및 제반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최근까지 아르헨티나와 함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던 베네수엘라가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한 배경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감소, 그리고 국내 정치불안을 들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2002년 들어 환율방어를 위한 정부 외환보유액을 방출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 이상 감소하여, 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05.4억 달러로 2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1년 중 건설 및 통신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00년에 비해 둔화되었

<표>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e	2002f	2003f
경 제 성 장 륜	-6.1	3.2	3.0	3.0	3.2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22.0	15.2	13.0	13.5	13.0
재 정 수 지/G D P	-1.2	-3.2	-3.6	-4.7	-4.3
총 외 체/G D P	20.5	16.8	16.2	16.2	18.0
경 상 수 지/G D P	3.6	11.1	5.1	2.0	2.5

자료 : D&B, Country Risk Indicator, Feb. 2002.

다. 석유산업¹⁾은 OPEC의 감산조치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국제유가도 전년 대비 20% 가량 하락함에 따라 석유수출 수입도 2000년 130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8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더욱이 환율불안을 의식한 자본의 해외 도피²⁾가 급증하면서 환율은 더욱 상승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실업률도 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그 동안 잠재해 왔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차베스의 정국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 고조

2000년 11월 차베스가 의회에서 부여한 신속협상권을 근거로 49개 개혁법안에 대해서 무리한 의회 통과를 강행하자, 노동계 및 금융계가 총파업으로 그들의 불만을 일차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2002년 2월에는 현역 공군 대령 Soto가 TV로 생

중계된 공개 토론회에서 차베스 대통령의 하야와 민간 임시정부 구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정국불안이 고조되었다.

차베스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요인으로는 첫째, 쿠바의 카스트로를 추종하는 외교노선, 둘째, 언론탄압에 대한 국제인권위원회의 비난, 셋째, 차베스의 사병화(私兵化) 시도에 대한 군부의 반발, 넷째,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이 지적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여 노동·산업계 및 종교지도자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지속해왔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차베스를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노동계, 종교계 등 재야세력은 '범국민협의회'(Governability Pact)를 구성하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측간 격렬한 비난전 전개와

1) 석유산업은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의 1/3, 수출의 60%를 점하고 있음.

2)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 이후 해외로의 자본도피액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본도피액의 급증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권을 표방한 차베스 정권에 대한 주요 비난 근거가 되고 있음.

차베스 대통령측의 관제 데모로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감산에 의한 고유가 유지와 정치불안으로 경제침체 양상 지속될 듯

3월 들어 국제유가가 회복되면서 동국 경제에 다소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OPEC의 감산합의에 의한 것으로 생산량의 대폭 확대 없이는 경상수지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2년 평균 유가를 배럴당 18.5달러로 가정하고 경제성장률 4%,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GDP 대비 재정적자 4.3%, 실업률 1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기업인 연합회(FEDECAMARA)는 현재 불안한

유가추이와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가정한 석유생산량과 유가수준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경제성장률 -1%, 소비자물가상승률 25%, GDP 대비 재정적자 6~10%, 실업률 14%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부정적 전망 외에도 차베스의 독자 외교노선으로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3월 초 교사들의 임금체불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치·사회불안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경제침체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며, 대외신인도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裴 祥 旭】